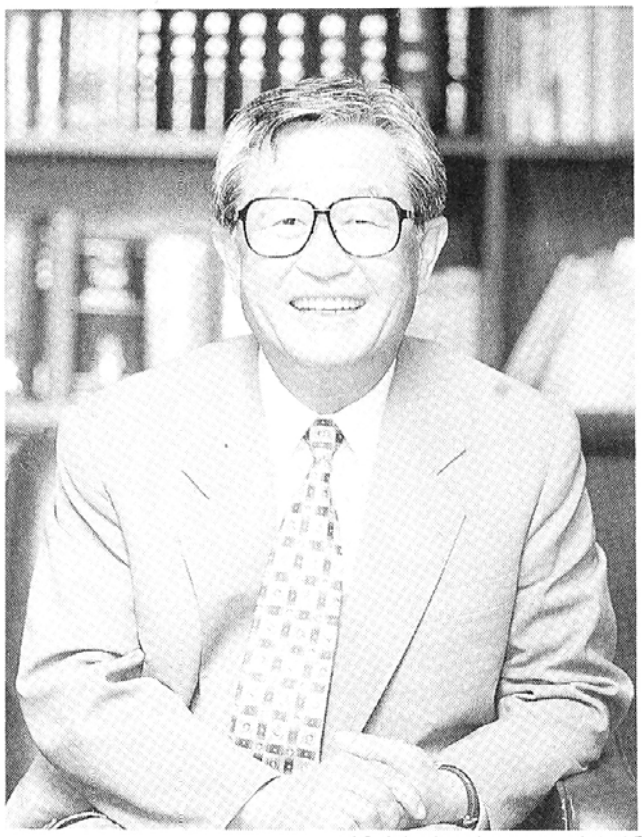
# "인간중심 경영 기업성공 열쇠"

## 산문밖의 禪

### (주)삼일사 홍영춘 대표이사



## 힘들때마다 '자신과 싸움'으로 극복
## 환경보존 주유소 시설변경 추진
## 1천8백여 직원 삶터 보장 '최선'
## "집착없는 무욕의 정신 갖자" 다짐

'유리하다고 교만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주)삼일사의 대표이사 홍영춘씨는 매일 출근길에 〈잡보장경〉에 있는 '걸림없이 살 줄 알라'라는 부처님 법문을 되새기는 것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하는 불자기업인이다.

30여년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의외의 길인 오일세일즈에 입문하여 28년간 오일맨으로 살아온 홍영춘씨는 불교학과 출신으로는 드물게 기업가로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의 불교 인연은 매우 자연스러웠다. 부친이 지난해 입적한 불교학자 홍정식 박사였으므로 온 집안이 불교일색이었던 것이다.

"뛰고 나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불자로서 더러운 것 깨끗한 것 가리지 않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도맡아서 했지요. 오직 생활 현장을 선방으로 여기고 치열하게 정진해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때는 나 자신하고의 싸움을 해야하는 경우지요. 내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면 결과는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었죠."

80년초 진급을 거듭할 당시는 유공이 미국 걸프사와 합작회사였는데 미국인 사장이 서류에 적혀있는 출신학과인 불교학과에 물음표(?)를 찍어 내려보낸 적도 있었다고 한다. 경쟁과 경쟁 속에서 '세속적인 줄도 선배도 없다'며 괴로움에 자책할 때마다 부인인 김성희보살은 '당신뒤에는 든든한 부처님이 계신다'며 위로했다고. 순간순간의 행로에 마가 찾아오면 더욱 더 자신의 마음공부에 치중한 홍영춘씨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뒤돌아보지 않고 정면으로 극복했다. 오직 그에게는 눈 돌릴 수 없는 한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홍씨의 화두는 '집착함이 없는 마음과 무욕의 정신을 생활화하자'는 것. 화두라기 보다는 좌우명 같지만 실천의지를 곧추 세운채 살아가기가 힘든 만큼 평생 풀어야 할 과제이긴 마찬가지라는 것이 홍씨의 설명이다. 사실 기업을 경영하는 불자로서 느끼는 갈등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상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도와주는 것이 바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외상채권 회수를 서두르는등 반대급부적 일을 해야할 때가 가장 괴롭다"는 심정을 밝힌다.

1천8백7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일터이자 삶터인 기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윤의 극대화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럴때마다 창문너머로 보이는 봉은사를 홀연히 찾아 부처님을 뵙고 답답한 마음을 정리한다. 그래서 그는 봉은사와 함께있는 것만도 행복하다고 말한다.

"사람과 연결되는 문제가 생겼을때는 사람이 해결해야죠. 경영현장에서 이것이 우주의 법칙중 끊을 수없는 도리임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유류업계의 제1인자로 부상한 홍영춘씨의 경영철학은 인본주의에 입각한 인간위주의 실천경영이다.

"결국 회사의 흥망성쇠는 사람들의 인지도가 좌우합니다. 자동차 한 대에서 큰 공장에 이르기까지 신속 정확하게 신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유공의 판매회사인 삼일사는 서울 강원 경기지역을 판매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고객의 편익시설을 마련하는등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주는 방향의 인적서비스를 실시중이다.

또 판매직원을 연수원에서 일정기간 연수시키고 서비스 활동 홍보조인 '아톰조'를 가동시키기도 한다. 이와함께 가출 청소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주유원 채용도 부모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인간생활과 하나되는 환경보존에 입각한 주유소의 시설 변경에 관심쏟는 것도 그의 인본주의가 마련한 장치다.

"사람은 내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남의 권리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질서속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자기는 완벽하고 남은 틀린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갈등과 불만이 쌓이게 된다는 그는 최근 유류업계에 불어오는 과당경쟁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내부비용 절감과 기구개편 경영개선 활동에 불만이 싹튼 직원들이 지난 6월 노사분규를 일으키는등 심한 몸살을 앓아야 했다.

"직원들이 사옥에 신나를 뿌리며 데모하고 유조차에 불을 지르는 계획과 건물옥상에서 분신까지 한다는 소식까지 들려 올때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기업의 상황을 다 펴놓고 얘기 할 수도 없고 직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홍영춘씨는 직원들과 직접 만났다. 그가 내놓은 말은 단순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면 내스스로 구업을 짓는 것이다. 믿어달라." 결국 직원들은 그를 신뢰했다. 어쩌면 그의 불심을 믿어준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업의 운영이 자기의 마음과 능력보다는 부처님이 외호해 주기 때문에 별 탈없이 이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는 출장을 가는 길에도 절이 눈에 띄면 빼지않고 법당에 들러 참배한다. "사찰이 있으면 부처님께 참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회사 야유회때도 직원들에게 인류의 성인인 부처님께 참배할 것을 권유한다.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절은 하는 사람의 업장을 녹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찰에 가기를 좋아하는 그의 기질은 군생활을 하며 휴가를 받으면 월정사로 가서 생활하며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귀대했을 정도였다.

결혼해서 처음에는 절에가도 법당에 들어가지 않는 무종교인이었던 부인이 지금은 한마음선원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며 그가 비지니스관계로 법회에 빠질라치면 가장 큰 질책을 가하는 사람이 됐다고 한다.

"하루하루 마음을 주인공에게 맡기 기도하고 내자신이 주인공이돼 역할도 해보고 그럽니다."

매일아침 6시면 기상하여 반야심경을 염송하며 마음을 바로잡는 산책과 저녁참회는 매일 반복되는 그의 신행생활 일부이기도 하다. 그것은 "나부터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 따르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다. 또 매달 1회씩 한마음선원에 나가 대행스님의 법문을 듣는 것도 그의 마음공부하는 일환이다.

홍영춘씨는 이제 새로운 일을 생각하고 있다. 얼마남지 않는 정년 후 자신이 가야할 길을 닦고 있다. 그는 아버님의 염원이었던 불교계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 이제는 숱한 수행의 길을 회향하고 끊임없는 자신의 내면을 탐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원우 기자

---

## 명당에 조상묘를 쓰고 싶은데…

**문** 사람이 죽으면 49일을 지나 전생의 업에 따라 육도윤회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스님은 사후에 혼이 셋이라서 자기 무덤과 살던 집에 각각 남는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후손들이 조상 묘를 잘못 이장하면 패가망신하는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상 무덤을 옮겨야 하는데 좋은 자리잡아 가족장을 해도 되는지요?

〈김중천 · 경남 진해시 용원동〉

**답**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사대로 흩어져 원점으로 돌아가고 업식만 남게 됩니다. 그걸 흔히 영, 영식 또는 영혼이라고 하는데 물론 불성과는 다릅니다.

아무튼 이 업식은 몸을 지녔던 인연으로해서 여전히 몸이 있는줄 아는 경우가 많고 생전에 살았던 마음자리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만나면 빠져죽을까 걱정하고 불을 만나면 타 죽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죽어서 육도윤회에 든다고 하는 것도 바로 생전의 마음자리를 그대로 지니고 있으니까 악업, 선업 지은 것이 그림자처럼 확대되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그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고로 생전에 독사같은 마음을 먹었다면 독사굴이 제집인줄 알고 찾아들게 되는등 전혀 분간을 하지 못해 삼악도에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후에 혼이 셋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려면 부모의 정혈을 받아 육신을 만들고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를 받고 업식이 합쳐야 합니다. 이 세가지가 합해져야 하는 걸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죽어도 생전 의식대로 가족에 집착하고 살던 곳에 집착을 하는 바람에 간혹 말로 설명키 어려운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마음의 작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과를 말하는 것도 다 마음으로 짓고 마음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녹이는 도리가 있다는 것을 필히 아셔야 합니다.

마음을 무시하고 귀신이 있다, 영혼이 어떻다 한다면 그것도 마음으로 짓는 것이니 귀신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게 됩니다.

조상의 묘자리를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디는 명당이고 어디는 흉지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그러하니 조상마음도 그럴 것이고 따라서 그 땅은 나쁜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상의 묘자리를 잡거나 이장을 하는 경우에 음습한 땅을 피해 양지바른 곳을 고르면 그로써 명당이지 명당이 따로있는 게 아닙니다. 후손들이 보기에 이만하면 조상을 모실터로 손색이 없겠다 하고 생각했으면 그대로 명당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극한 마음입니다. 내마음이 지극하면 조상마음도 감응하게 됩니다. 마음을 떠나 방편에 집착하신다면 조상의 업식에도 생전의 좋고 나쁨이 있으니 이를 어찌하시렵니까?

마음도리를 공부하라는 것은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인이 되라는 당부입니다.

스스로 땅은 어디가 좋고, 방위는 어느 쪽이 좋고 택일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관념의 벽을 둘러쳐 놓는다면 그것은 감옥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내 편한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전에 조상 모실 때 한 끼의 식사라도 내 편한대로 차려드리는 것하고 없는 반찬이지만 정성을 담아 내놓는 것하고 차이가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 神과 주인공은 어떻게 다른지요

**문** 요즈음 전생을 안다, 미래를 내다본다는 책들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무속인들의 신내림과 스님이 말씀하시는 주인공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요.

〈하월수 · 경주시 황성동〉

**답** 우선 말씀드릴 것은 미래를 본다거나 전생을 읽는다 또는 예언을 한다는 따위는 다 소인들의 짓임을 아셔야 합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가겠지만 부처님 말씀인즉, 분명 오신통도 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마음도리에서는 자유로운 해탈의 길을 증득하자는 것이지 그따위 어줍지않은 능력을 추구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은 세상에는 누구나 신통 몇가지 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만 돌리면 즉시 지구 반대쪽이라도 통신이 되고 팩스가 오가고 안방에 앉아서 올림픽 경기를 다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몇만 광년밖의 우주도 내다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누가 좀 아는 듯한 소리를 했다고 거기에 현혹된다면 어찌 자신을 만물의 영장입네 하겠습니까?

예언도 그렇습니다. 세상 돌아가는게 참나도 쉬지 않고 바삐 움직이는데,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데 어디 정해놓은게 있어서 미리 알아 맞춘다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시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다가도 싫으면 그만 두는데 그게 다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요는 마음먹기에 달렸으므로 팔자운명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도리는 광대무변해서 비록 인과의 법칙은 있을지언정 딱 정해진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신이 있는 것처럼 물으셨는데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입니다. 그 또한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을 말하는 것은 대상으로서의 주인공이 아니라 나의 근본자리를 이름입니다. 여러차례 말씀드리는데도 주인공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영원한 생명, 내가 마음 내는 것, 움직이는 도리를 뭉뚱그려 붙인 이름입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

**지 상 상 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

"여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황토로 만든"

가정용 전통 쑥 좌욕기 "탄 생"

**당신의 건강진단서, 이상 없습니까?**

냉이 심하다, 가끔 하혈을 한다. 월경불순과 월경통이 빈번하다.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 치질때문에 고통스럽다. 혹시 자궁암에 걸린것은 아닐까? 이런 근심, 걱정, 전통 쑥 좌욕기를 만나는 즉시 말끔히 해소됩니다. 하루 30분씩 전통 쑥 좌욕기에 앉이만 있어도 하복 장기질환이나 모든 자궁병 질환은 저절로 치유되고 예방되기 때문입니다.

**"전통 쑥 좌욕기로 치유되는 질병 사례들"**

(전통 쑥 좌욕은 이런 병들을 치유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여 성** 부인병, 냉 · 대하, 빈혈, 치질 월경불순, 월경통, 질염, 요도염, 방광염, 자궁근종, 자궁암, 불임증, 산후통, 산후조리, 출수촉진용, 염증 및 혈액순환촉진, 배가 냉한사람, 설사가 심한사람, 노폐물제거, 기미 · 여드름 방지, 전신피로, 배 · 가슴 근육제거, 갱년기장애 등

**남 성** 치질, 전립선염, 비대증, 전립선암, 조루증, 정력감퇴, 발기부진, 빈뇨, 잔뇨, 소변곤란, 배뇨통 등

★ 얼굴 피부가 거친분, 여드름 기미가 많은 분은 얼굴을 좌대위에 놓고 찜질하십시요. 피부가 윤택해지고 여드름, 기미가 제거됩니다.

★ 팔, 다리에 신경통, 관절염, 마비증상이 있는 분은 아픈부위를 좌대위에 올리놓고 황토, 쑥찜질을 하십시요. 놀랄만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 료 원 리**

여성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질병은 대수롭지않게 생각했던 사소한 자궁질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궁질제수술과 낙태, 무분별한 성생활, 냉방에 거처하며 몸을 차게 한것과 또한 수세식변기를 주로 사용하는 현대인에게는 그곳에서 나오는 수분과 습기의 영향을 장기간 받게되어 냉증, 생리불순이 많이 생기고, 이상태가 오래되면 온갖 부인병과 자궁암, 허리요통을 유발하고 신장, 대장, 간까지 나빠지며 혈액순환까지 장애를 받아 나이들면 만성 신경통, 관절염의 원인제공이 되고있습니다. 전통쑥좌욕기는 1시간이상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안에 약쑥의 탁월한 효능과 황토의 신비한 약성과 기적의 치유력을 나타내는 원적외선의 심달력이 삼위일체로 합쳐져 인체조직 파괴의 위험없이 신체심부까지 골고루 깊숙이 스며들어 자궁을 냉한것으로부터 항상 따뜻하게 보호하고 청결하게 소독시키며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병균을 살균시켜 온갖 부인병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을 미리 치료예방시키고 현재 질병을 갖고있는 여성에게는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성이 있는 집이면 어느 집이고 필수적으로 한대씩 구비해야 할 필수품입니다.

**전통 쑥 좌욕기란?**

하복장기질환인 ㅈ·궁병, 냉 · 대하, 치질, 변비, 방광염, 전립선염등을 치유시키는데 그 어떤 방법보다도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던 옛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담은 전통적인 세가지 재래식 치료요법을 그대로 살려 이 세가지 치료요법이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병합되어 나올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좌욕기 구성요인 각각마다 자체에서 발생되는 약성이 최대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질병에 대한 치유효과를 극대화시킨 가정용 좌욕찜질 요법기입니다.

**특징 및 구성요인**

1 좌대 (좌욕대) : 황토를 주원료로한 분청 자기로 좌대를 만들어 뜨거운 열을 받으면 황토의 신비한 약성효험이 대폭크게 작용하는 황토의 특성을 살려 황토기운을 자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오는 영향으로 좌대가 뜨겁게 되므로서 황토방에서 풍겨 황토구들자위에 앉아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내열탕기 : 질병에 대해 기적의 치유효과를 나타내는 원적외선이 많이 방출되도록 바이오 세라믹이 80%이상 다량 함유된 특수 도자재(陶磁器)로 약쑥을 끓이는 내열탕기를 만들었고 빨리 식지 않고 1시간 이상 뜨거운 열을 발산하도록 두껍게 깊고 넓게 만들었습니다.

3 약쑥 : 쑥은 약쑥중에서도 가장 약효가 좋은 해풍(海風)을 맞으며 강인하게 자란 강화 약쑥만 엄선하여 끓일때 편리하고, 쑥의 약성분이 잘 우러나온 수 있는 인체에 무해한 종이티백에 넣어서 사용하기가 간편합니다 (100일분)

4 100%황토가루 : 「본초강목」「동의보감」「향약집성방」등의 의서에 황토가 들어있는 물은 그 약성이 매우 높아 이물을 끓일을때 다른 물질과 섞이면 그 효능을 희상급의 물질로 변화시킨다는 기록에 따라 약쑥의 효능을 배가시키고 황토의 신비한 약성을 받고자 순수 황토가루를 무입토록 하였습니다.

5 내열탕기에 약쑥과 황토가루, 물은소금을 넣고 끓여서 황토받침대 위에 그대로 올려 놓기만 하면 누구나 1시간 이상을 손쉽게 좌욕을 할 수 있어 편리하며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않고 좌욕기 한대로 남, 녀노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6 오래 앉아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질병치유효과가 크도록 구조 및 규격이 설계되었습니다.

**특별보급 가격 : ₩ 230,000**

※ 본 좌욕기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아시고자 하는 분은 전화주시면 카다로그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고자 별 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 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 쑥 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에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 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심장, 저 · 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 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 체질 , 술 · 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보급가격: ₩150,000**

**전국지회 모집**

전국시 · 군 · 구지회 미개설지역 · 방문 및 전화상담

제조원 : 바라밀 건강연구회

● 본회 : (지회상담문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전화 : (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서울사무소 : (02)508-3284/5
● 본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스님)
부설: 불교바라밀 건강연구원 전화: (051)864-3740


서울(02) 강남:553-0261-2 서초:508-3284-5 송파:417-8922 성북:942-6430 은평:305-2910 종로:747-7033 노원:942-6430 마포:715-2082 강북:994-3108 반포:597-7581 부산(051) 부산진구:803-0108 연제구:864-3740 대구(053) 칠곡:323-2508 광주(062) 동구 228-8544 대전(042) 중구:222-4806 서구 534-4211 전주(0652) 덕진구:75-6733 경남지역 마산:(0551)23-9016 창원:(0551)62-0076 진주:(0536)73-0039 울산:(0522)74-7536 경북지역 경주:(0561)772-3256 구미 · 군위:(0578)83-5308 포항:(0562)82-3155-6 제주도(064) 제주시:22-3324 충북지역 제천 · 단양:(0443)46-3023 강원도지역 강릉:(0391)645-2117 경기지역 의정부:(0351)873-0532, 44-3114 수원:(0331)291-8549 분당:(0347)66-0049 용인:(0335)35-4293 광주:(0347)65-1047